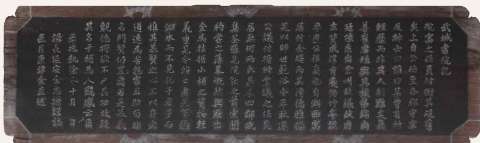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1916_김사겸(金思謙) 지음_19.0×76.0cm



1916년 강장에 선임된 김사겸(金思謙)이 서원의 옛 규약을 회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용식(崔庸植), 최정식(崔廷植) 등의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기문이다. 당시 규약 뿐만 아니라 일부는 자금을 모아서 서원 운영에 활용하였다. 일제강점기 시기 서원 운영을 확인할 수 있는 기문이다.

武城書院記

院案之任員付衙其規舊矣上自公伯至各郡守宰及紳士曰誰曰某曾有所經歷而非其人則難矣嘉善崔庸植與其族弟錦南廷植系出全州故議政府左贊成諱有慶號竹亭諱平度公後裔也自湖西寓居於金堤而其清德雅操足以師世範俗今年秋遂公議付摺紳掌議之任矣居無何兩氏鼎來四隣咸集茶罷見院貌之蕭索聞約嘗之薄略慨然興歎出金爲拮据小補之資物輕義重見今滔滔者天下過泗水而不見孔子者多而惟其慕賢之心不以身老道遠爲苦既審且助苟非名門賢仍豈庸若是慕義親德將欲不尸其功故錄其名于楣爲人觀感云爾

柔兆執徐冬十月日

講長延安金思謙謹識

直月康津金直述

무성서원기[武城書院記]

원안(院案)에 기록된 임원들이 서원의 옛 규약을 적어주기를 부탁하였다. 위로는 공백(公伯)에서부터 아래로 각 군(郡)의 수령 및 사대부들에 이르기까지 '누가 좋겠다 또 누가 좋겠다'라고 하며 일찍이 거쳐 간 이들을 찾았으나 적당한 이가 없어서 어려웠다. 가선(嘉善) 최용식(崔庸植)과 그의 족제(族弟) 금남(錦南) 정식(廷植)은 계출(系出)로서 전주(全州)의 고(故) 의정부 좌찬성(左贊成) 휘(諱) 유경(有慶), 호(號) 죽정(竹亭),

시호(諡號) 평도공(平度公)의 후예이다. 호남(湖南)의 김제(金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산 뒤로부터 그 맑은 덕과 전아한 지조는 속세의 스승이자 모범이 되기에 충분하였다.

올해 가을 공론을 따라 진신장의(摺紳掌議)의 소임을 맡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분이 도착하자 이웃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다. 차를 물리고 나서 서원의 쓸쓸한 모습을 보고 규약의 부실함을 듣고서는 개연히 탄식하였다. 돈을 내어 조금 보탬이 될 만한 자금을 긁어모았으니, 이는 물건을 가볍게 여기고 의리를 무겁게 여긴 것이다. 오늘날 사수(泗水)를 지나더라도 공자(孔子)를 보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나 오직 성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뭍은 늪여가고 갈 길은 멀다는 사실을 괴로움으로 삼지 않았다. 이미 자세히 살피고 또한 도움을 주었으니, 만약 각 가문의 현인들이 아니라면 어찌 이처럼 의를 사모하고 덕을 바라보아 장차 그 공(功)을 주관하려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그 이름들을 처마에 새겨 사람들이 보고 느끼게끔 하고자 한다.

유조집서(柔兆執徐, 丙辰, 1916) 겨울 10월

강장(講長) 연안(延安) 김사겸(金思謙) 삼가 짓다.

직월(直月) 강진(康津) 김직술(金直述)

※ 번역 : 『무성서원 고문서(현판) 번역 및 자료집』, 정읍시, 2020